



성도를 무장시킨라 외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9년 6월 5일

홍콩 콜투올 컨퍼런스

홍콩에서 열린 콜투올 컨퍼런스는 여러 가지 역사적 목표를 달성하며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 교파의 한계를 초월하고, 은사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를 뛰어넘어 이 세대의 대위임 완수를 위해 동역하도록 거의 모든 주요 선교 운동들 간에 화합이 이뤄짐
2. 선교 운동과 기도 운동 간의 연합과 협력이 이뤄짐
3. 향후 10년간 중국이 세계 선교에 주된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인정함
4. 중국, 인도, 무슬림 세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로의 아웃리치에 초점을 둔 전략적 계획을 함 (중국에서는 이 계획을 “백 투 예루살렘”이라 명명함).
5. 콜투올의 세계 전략에는 (아직 인식이 초보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음.

흥미로운 것은, 이번 컨퍼런스가 1989년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가 있는 지 20주년을 기념하는 때에 열렸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 개시와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것인데,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 지어졌으며 이제 홍콩 관광객들을 위한 가족-영성 관광지로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틱쿤 컨퍼런스

올해 펜실베이니아 주 랜캐스터 시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으며, 틱쿤의 미 공동체 네트워크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주요 집회에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임해 많은 예언적 은사가 나타났으며, 패티 저스터 (Patty Juster)와 다비드 루돌프 (David Rudolph)가 전체 진행을 하고 폴 윌버 (Paul Wilbur)가 두 번의 저녁 집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크고 중요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청소년과 청년 리더십들에게 였습니다. 댄 저스터 (Dan Juster)의 아들 벤 (Ben)은 새로이 미국 지부 운영 디렉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목사급 대표 지도자들 사이에는 연합이 임했습니다. 약 50 명의 청소년들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따라 인도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언약의 관계를 맺어온 저희의 미국 티쿰 운동은 다시금 중요한 언약의 단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권세를 젊은 세대에게 넘겨주고, 저희 가운데 나이든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임 컨퍼런스

캔자스 시티의 IHOP에서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이스라엘 위임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댄과 아세르가 마이크 비클 (Mike Bickle)과 더불어 강의를 할 것입니다.

성도를 무장시키라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비전은 (이름에도 나타나듯)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임하게 하고, 그로부터 온 열방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예슈아의 열두 제자와 바울의 사역 팀을 기초로 사도적 팀이 구성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의 표현에 따라 “5 중 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엢 4:11-12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메시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몇 가지 항목을 주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팀워크 - 이 구절들은 리더들 간의 협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리더들이 연합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부흥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농구와 같은 구기를 하는 중, 어떤 팀원이 공이 넘어오기만 하면 바로 슛을 쏘는 경우를 보셨나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팀워크를 알지 못하는 거죠. 팀 사역이라는 것은 슛을 넣을 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수비도 하고 다른 팀원들에게 패스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팀 플레이를 할 줄 모르는 리더들의 모습은 부끄러운 광경입니다. 팀워크에는 피차 간의 복종이 요구되고, 우리는 교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 사역을 위해서는 리더들이 다른 이들과 신뢰와 충성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2. 다양한 사역 - 모든 사역자가 목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다섯 가지 직분이 열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들 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목회자처럼 사역하려고 하는 예언자와 전도자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은사를 받은 예언자와 전도자들에게 그 사역을 담임 목사에게 굴복시키라고 하는 것은 낙심을 낳을 뿐입니다. 사도적 팀은 이러한 사역들을 융화시키고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5 중 사역의 은사는 리더십에게 해당되는 것뿐입니다. 다른 많은 지체들에게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 장에 나오는 것처럼, 섬기는 일, 공물을 베푸는 일, 다스리는 일, 위로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메시아의 몸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영적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터 (기업, 정부, 언론, 교육 등)에서의 사역도 교회 내의 사역만큼이나 중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아의 사역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3. 젊은 리더들의 훈련 - 이 구절은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무장의 시작은 기초 제자도의 끝입니다. 이것이 연령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이 보통은 기성 세대로부터 젊은 세대에게 흘러 내려갑니다. 우리의 공동체들은 아직 젊은, 미래의 리더들이 기성 세대와 함께, 그러나 더 숙련된 리더들의 감독 하에 사역할 기회를 갖는 사역훈련 기지이자, 연습장, 연구실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들은 “선수”보다 “코치”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번 미국 티쿰 공동체 컨퍼런스에서 저희는 젊은이들이 맨 첫째 줄에 나와 성령 세례를 위해 회중들에게 사역하도록 했고, 기성 리더들은 그들 뒤의 둘째 줄에서 격려하고 바라보며, 조언을 주었습니다. 최근 텔 아비브의 틱에렐 예수아 공동체에서 사역했을 때, 저는 저희 팀 젊은이들 일곱을 데리고 가 말씀을 나누고 회중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리더로서 강의나 사역을 할 때면, 저희는 저희 제자들이 저희와 더불어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훈련의 모델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배가되고, 저희가 소유한 언약적 관계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